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NOBODY EVER TELLS THIS STORY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Gillettenarrative.com

GILLETTE: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모두가 지쳐 있었다.

패자들은 수년에 걸쳐 다져 온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승자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해야 했다.

사람들은 지쳤지만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모든 남자 뒤에는 대개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역사가 그녀를 거의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산산조각 난 경제를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이 언제나 가장 잘해 온 일을 하고 있었다: 장사. 공장이 늘고, 이익이 늘고,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기존의 필요에 응답했다.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욕망을 만들어 냈다. 1950년대 말 무렵, 산더미 같은 콘돔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공식적인 이유는 충분히 단순했다: 질병 예방.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메달에는 얼굴이 하나 이상 있다.

그 제품은 그다지 싸지 않았고, 꾸준히 쓰려면 지갑에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했다. 그것은 작은 투자가 되었다.

누구나 적어도 하나씩은 지니고 다녔다. 숨겨서. 접어서. 지갑 속에 위장한 채, 적절한 비상사태를 기다리며.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다.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알아챈 회사는 젓병과 고무젓꼭지를 만드는 독일 제조업체였다. 회계 담당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보았다. 매출이 줄고 있었다. 소비가 줄고 있었다. 아기가 줄면 고객도 줄었다.

회의가 이어졌다.

계획이 이어졌다.

투자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기는 실험실에서 살 수 없다.

태어나야 한다.

회사는 해결책을 찾느라 애썼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자 사장은 나폴리 근처의 중요한 이탈리아 고객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량의 상품을 움직이는 데 놀라운 재능을 가진 대형 도매상이었다.

사업 회의는 잘 진행되었다.

그날 저녁, 고객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 식사 후, 완벽한 이탈리아식으로, 손님은 그날 밤을 위해 “담요”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만 이것은 평범한 담요가 아니었다.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을 마흔 살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일흔다섯 살의 러시아 여자였다.

그녀에 따르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먼저였다.

돈은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고집했다.

독일인은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나도 그렇다.

사실 그녀의 말은 수상할 만큼 나와, 나의 빌어먹을 1달러 제안처럼 들렸다.

저녁의 의식을 마친 뒤, 독일 사업가는 마침내 긴장이 풀려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털어놓았다.

러시아 여자는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리고는, 남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여자들이 수 세기 동안 해 온 것처럼, 세기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당신만의 콘돔 공장을 세우세요.”

사업가는 그녀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는 콘돔이 젖병과 고무젖꼭지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혼란을 보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원료는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와요. 생산비는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운송비는 최종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파세요. 마진의 일부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독일인은 여전히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

그때 진짜 아이디어가 나왔다.

“콘돔 백 개를 만들 때마다, 열 개는 불량으로 만드세요.”

사업가는 숨이 막힐 뻔했다.

“불량이라고요?”

“아주 작은 구멍 하나요. 바늘만 한. 보이지 않게.”

침묵.

그리고 나서 그녀가 덧붙였다:

“나머지는 아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독일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그는 독일인이었고, 독일인은 대개 기적보다 통계를 좋아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웃음은 사라졌다.

아이디어는 남았다.

그러다 그것은 생각이 되었다.

그러다 가능성이 되었다.

그러다 만트라가 되었다.

결국 그는 러시아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에 합류해 달라고 청했다.

그는 보수에 관해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그녀가 매달 수표에 적고 싶은 금액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출생이 회복되었다.

소비가 회복되었다.

젖병 사업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콘돔을 거의 잊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을 빨아서 널어 말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약간의 나폴리식 마법.

Ferdinando